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배포일자 2023년 10월 24일(화) 총 4매		
담당 자		• 탄소중립전략팀장 • 담 당 자	손여순 ☎440-8591 서상원 ☎440-859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탄소중립 실천위해 직원 식당 잔반 제로(Zero) 도전!
 - 직원 식당 「탄소중립 잔반 제로(Zero) 시범 사업」 실시 -
 - 공공이 앞장서는 2045 탄탄제로(Carbon-Zero) 실천문화 확산 -

‘2045 인천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인천시가 직원 식당 잔반 줄이기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청 직원 식당(소담홀 별관)에서 ‘탄소중립 잔반 제로(Zero)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이 솔선수범하는 탄소중립 생활화로 시민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들 수 있다.

음식물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높아 1톤당 98kgCO₂eq탄소가 배출되고,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발생 된다. 인천시청 구

내식당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18.8톤으로, 1,842kgCO₂eq의 탄소가 배출됐다.

‘탄탄제로(Carbon-Zero) 인천’ 생활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청 구내식당 소담홀(별관)에서 남김없이 식사하고 태그로 인증해 잔반 현황을 관리한다. 준비된 모니터 화면에 1일 단위로 음식물 잔반 발생 현황, 잔반 제로 성공자 현황, 잔반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표출함으로써 잔반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이 사업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 등 성과를 분석한 후 2024년부터는 시청 구내식당 전체와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이 사업에 동참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음식물 생산·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는 시민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 및 범시민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가목표(NDC) 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인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4대 정책방향(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국제협력, 기후안전도시) 166개 세부 사업과제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국내 공공청사로는 최초로 ‘1.5℃ 기후위기사계’를 설치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산·학 탄소중립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26~) 등 탄소-경제가 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탄소중립 교육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글로벌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4개국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당시 인천시는 '탄소중립 및 기후 적응 대책' 을 발표해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전국 23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 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도사례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하면서 지방정부의 기후 적응 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3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천의  대한민국의 **미래**

2045 인천 탄소중립

탄탄제로 Carbon Zero 2045 시범사업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잔반 ZERO 인천



탄소중립 잔반 Zero 시범사업

기간 2023.10.23 ~ 12.31

장소 소담홀 별관

참여방법 식사 후 잔반 제로 성공자
식사카드(공무원증) 체크

경품제공 우산, 박데리, 멀티탭
(시행 첫날, 둘째날 현장 추첨)

* 음식폐기를 1톤당 98kg 탄소 배출

탄소중립 실천 음식폐기를 줄이기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10%가 음식을 생산·폐기 과정에서 나옵니다.
-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줄이기 범시민 실천에 동참이 olun해오.

탄소중립 시민실천 소비생활

- 전자영수증 발급
- 텀블러·다화용컵 이용
- 친환경제품 구매
- 재활용품 분리 배출
- 무공해차 대여
- 일회용품 반환

